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 교차

- 스트레스테스트 공개 이후 3일 동안 채권·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금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로 인해 재정위기가 해소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함.
 - 스트레스테스트 공개이후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최악의 상황이 제거되면서 7월 26일~28일 동안 유로지역의 주식가격은 6.3% 상승하였으며 특히,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던 채권시장은 급격한 회복세를 보임.
 - 독일과 주변 국가(그리스, 스페인, 포르투갈 등)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는 급격히 축소됨.
 - 스페인과 독일의 국채 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기존의 스프레드 격차가 20bp가 줄어들어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은 147bp를 기록함.
 - 스페인이 10년 만기 국채를 성공적으로 매각하였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주변 국가들에 대한 국채 매입 신호로 작용하게 됨.
 - 그리스도 지난 5월에 국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이후 처음으로 단기 국채 매각에 성공함.
 - 유로지역의 국채 옥션시장도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여줌.
 - 포르투갈이 7월 28일에 매각한 4년 만기 국채 옥션의 금리는 한 달 전에 비해 1%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(4.65%→3.62%).
- 그러나 시장분석전문가들은 스트레스테스트는 테스트에 불과할 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지급불능 위험,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, 자본보강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함.
 - 그리스는 경기회복에 대한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, 2013년에는 정부부채의 규모가 GDP의 150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,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독일과 745bp의 격차를 보이는 등 누적 재정적자 문제와 국가부도 위험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.
 - 유럽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의 시나리오는 이와 같은 사항을 편의에 따라 무시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함.

(Financial Times, 7/28)